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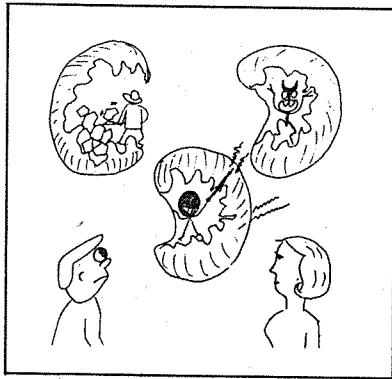
# 腎臟病이야기

신 장 병

## 우리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뇨(尿) 검사를 받으시다.

### 신장병이란 ?

■ 청춘 남녀에 신결석, 신결핵, 신우염이 많다.



■ 감기에 잘 걸리는 어린이는 조심 합시다.

신장은 2개가 있습니다. 2개중 1개를 잘라 버리더라도 나머지 1개가 두개목의 일을 하지만 신장병에는 2개의 신장이 한꺼번에 병이 들거나 하

나 또는 두개의 신장, 일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신염(腎炎)과 신증(腎症)

두개의 신장이 한꺼번에 병드는 것이 신염이나 신증 등입니다.

신염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급성신염은 편도선염, 症候熱 등에 계속해서 걸리는데 이를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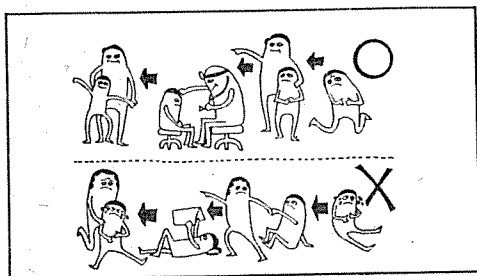
편도선염에 걸리기 쉬운 어린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어린이, 품기 잘하는 어린이들은 이들 병에 걸린후 7일~10일간 잘 조심하지 않으면 나왔다고 생각한 후 1주일쯤 후에 신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신증은 세뇨관(細尿管)에 발생하는 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대부분은 리포이드 신증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 그 원인은 아직 불명입니다.

● 일부가 침해된 신우염(腎盂炎)

하나 또는 두개의 신장 일부가 망가졌을 때는 세균감염중 흔히는 대장균에 의해 망가지는 신우염, 신우신염(腎盂腎炎), 결핵균에 의한 신결핵(腎結核), 화농균에 의한 신농양과 신주위염등이 있습니다.

또 오줌의 염류가 결정을 형성하여 점점 커져서 돌이 된 신결석도 있습니다. 이 결석은 오줌관이나 뇨도에 들어가 오줌이 나오는 것을 막고 심한 아픔과 발작을 일으킵니다.



■ 신장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병과 연령(나이)**

■ 어린이에 많은 급성 신염(腎炎)

어린이들에 많은 신장병은 신염, 특히 급성신염입니다.

신염으로서 원인이 확실치 않은 리포이드 신염은 1살에서 6살사이의 어린이들에 많고 어른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어린이에서 발견되는 신장의 종양(腫瘍)으로 윌름스 종양

이 있습니다.

이 종양은 어린이들 악성종양의 20% 내지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 임신했을 때나 출산(出産)후

청춘 남녀에 많은 것은 신우염, 신결핵, 신결석등이 있습니다.

신우염은 젊은 여성에게 많은데 특히 임신중이거나 출산후에 가끔 눈에 띄입니다.

신결핵은 20세 전후에 많고 폐결핵등에 이어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 구라비즈 종양은 남자에 많다.

노인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은 신경화증이라고 하는 신장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해도 괜찮은 정도로서 고혈압환자의 10% 전후는 신경화증이 된다고 합니다.

또 노인이 되면 남성은 전립선(前立線)이라고 하는 기관이 비대하여 짐으로 뇨도를 압박하여 오줌 나오는 것이 나빠지고 방광염이나 신우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신장 종양에 구라비즈 종양이라 불리우는 악성종양은 60세 내지 70세의 노인들에게 볼 수 있으며 대개 70%가 남자에게서 일어납니다.

**신장병은 나올 수 있나?**

■ 빨리 발견하여 손을 쓰면 낫습니다.

신장병중에는 치료에 의해서 깨끗이 낫는 것과 잘 낫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급성신염

급성신염은特效약은 없고 조기 발견하여 충분한 치료로서 2 내지 3주일이면 간단히 낫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빨리 낫습니다. 그러나 휴양, 치료가 충분치 못하면 만성 질환이 되며 이렇게 되면 잘 낫지 않습니다.

만성신염이나 신경화증은 거의 낫지 않습니다.

신증은 부신피질, 홀몬제 등으로 증상은 좋아지나 재발이 반복되어 완전히 낫는 것은 적습니다.

임신腎은 출산후나 중절후에는 좋아집니다.

### ● 급성신우염

세균이 감염되어 일으키는 급성신우염은 항생물질로 완전히 치료가 되지만 만성이 되면 재발을 반복해서 낫기가 어렵게 됩니다.

### ● 신결핵 (腎結核)

결핵약으로 잘 낫지만 완전치유는 어렵고 2개의 신중에서 1개가 나쁘고 나머지 1개가 정상이면 나쁜쪽 신장을 수술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 ● 신결석 (腎結石)

신결석은 작은 것이면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오줌과 함께 씻겨나가게 하고 큰 것이면 수술을 해서 돌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나 신결석은 재발되기 쉬운 병으로 좀처럼 완전하게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 ● 신장의 종양

수술해서 고칠 수 밖에 없으나 악성종양일 경우, 다른 장기에 옮겨지거나 주위에 번져 병이 악화되고 하여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느때나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최고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 신장병은 예방할 수 있나?

■ 우선 원인이 되는 병을 치료 받는 일입니다.

신장병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장병은 예방되는 것인지 또한 예방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알아 봅시다.

### ● 급성신염

편도선염은 자주 앓는 어린 이에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린이는 편도선이 비대해졌을때 이것을 제거해 버리든가 약으로 신염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치료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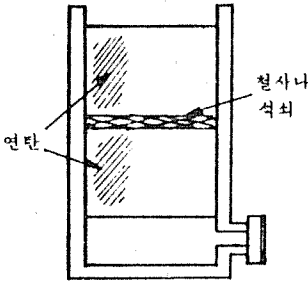
### ● 만성신염과 신증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은 대단히 어려우나 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서 이들 병에서 2차적으로 병발하는 병들, 예를 들면 만성신염에서는 고혈압과 심장쇠약, 신증에서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므로 폐염이나 화농증이 되지 않도록 예방수단을 강구하지

## 생활과학 ●

### ○ 연탄 보일러 사용주의

- 연 1~2회씩 내부화덕(토관)을 빼내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 토관이 잘 부서질 경우 토관외부에 가는 철사를 고루 고루 감으면 오래 쓸수 있다.
- 순환하는 물은 년1~2회 깨끗한 물로



같이 준다.

- 가동하지 않을때도 파이프에 물을 채워 두어야 금속이 공기과 접촉하지 못하여 녹이 쓸지 않는다.

### ○ 연탄이 엉켜붙지 않게하는요령

화덕의 공기구멍을 열어놓고 연탄을 한꺼번에 불을 붙이면 밑불과 윗불이 한데 붙어 연탄을 갈때 힘들게 되고 또 연탄재가 부서져 지저분해지기 쉽다.

이런 경우에는 쿨러다니는 철사나 오래되어 썩은 석쇠 따위를 버리지 말고 연탄 크기에 맞게 구부려서 밑불위에 놓으면 서로 붙지 않는다.

### ○ 연탄을 갈아 넣을때

연탄을 갈아 넣을때 상하의 탄이붙어 애를 태울때가 있다.

이럴때는 신문지등을 연탄 윗면 넓이만큼 동그략게 올려서 갈아넣을 때마다 상하탄의 중간에 넣으면 붙는 일이 없다.

않으면 안됩니다.

### ● 정기적으로 뇨검사를 받자

병을 예방하려면 우선 유치원이나 각급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하는 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혈압을 재서 고혈압인 사람은 혈압을 조절하여 신경화증을 예방하고 임신부는 임신신(腎)을 조속히 발견토록 해야 합니다.

세균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신우염이나 신결핵은 예방이 됩니다.

신우염은 오줌이 잘 나오도록 한다던가 신결핵은 사춘지간인 폐결핵을 고치면서 같이 치료 합니다.

다만 신장중양으로 악성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 ● 병이 되어버렸으면

이외같이 신장병도 예방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장병이 되어버렸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